

아마추어 예술가는 문화도시 싹틔줄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7) 지역 문화 살리는 풀뿌리 문화단체

아름다운 가사와 멜로디가 어우러진 우리 가곡이 점점 잊혀지는 걸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있었다. 인터넷 가곡 사이트 '내 마음의 노래'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지역의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를 만든 게 지난 2008년. 이들은 매월 둘째주 금요일 호남신학대학교 카페 티 브라운에서 모여 우리가곡을 함께 부르고 새로운 노래를 배워나갔다.

운영위원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으고, 회비 1만원을 걷어 첫 행사를 치를 때만 해도 지속적인 행사가 가능할까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50여차례 모임을 갖는 등 '두번째 금요일의 가곡 부르기'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됐다.

매회 50~90여명이 꾸준히 다녀갔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4000여명, 함께 부른 노래는 700여곡에 달한다. 노래 부르기에 빠져 체계적으로 성악을 공부하는 이들도 늘었고, 아마추어 합창단에 들어가 또 다른 꿈을 만들어가는 이도 생겼다.

노래를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작은 씨앗이 됐다.

푸른연극마을의 배우 송정숙(55)씨는 아마추어 주부극단을 거쳐 프로배우가 됐다. 송씨는 2011년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주부극단 '엘리스조마들'을 통해 '첫무대'를 경험했다. 그해 푸른연극마을이 '사평역'을 정기공연 작품으로 올리면서 '중년의 서늘여자'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덜컥 지원해 프로 무대에 올랐고 이후 '안티고네' 등 여러 작품에 출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파를 풀게 하는 싹틔움처럼 자생적인 풀뿌리 문화단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프로 예술인들의 활동과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시립단체들, 프로단체들이 지역 문화계의 '큰 그림'을 그리다면, 풀뿌리 자생단체와 아마추어들의 움직임은 그런 그림을 완성시키는 요소들이다.

특히 프로와 비전문가들이 어우러져 함께 완성해가는 예술활동은 문화도시에 꼭 필요한 자양분으로 프로극단들과 연계한 아마추어 극단들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푸른연극마을이 운영하는 주부극단 '엘리스 조



지역문화계를 풍성하게 하는 건 다양한 풀뿌리 문화단체들의 활동이다. 2008년 모임 결성후 매월 한차례 모임을 갖고 있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프로·비전문가 어울린 자생적 모임 문화 텃밭 씨앗

연극·무용 등 142개 단체 '문화나무예술단' 눈길

마을'은 '에어플레이너' 등을 무대에 올렸으며 극단 '청춘'과 함께 호흡하는 직장인 극단 '연우' 역시 2011년 창단 후 'TV 동화-행복한 세상'을 무대에 올리는 등 바빠 움직이고 있다. 또 주부극단 'Play mom'과 청소년 극단 '청연' 등도 '그들만 아는 장소'를 공연했다.

문화활동에 접근하는 게 낯설다면 공연장 상주단체들이 운영하는 각종 퍼블릭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다. 광산문화회관, 남구문화회관 등 각 문화 기관들이 그린발레단, 원아트컴퍼니,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강숙자오페라라인 등 프로단체들과 연계해 실내악단, 발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나무예술단'의 활약도 눈여겨 볼만하다. 2011년 재단 출범과 함께 발족한 문화나무예술단은 음악, 무용, 클래식, 대중음악, 미술,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

르고 있다.

지난 2011년 '하모니 테라피', 퓨전국악그룹 '늘숨', 가수 정용주, 미술사 김태현 등 66개 단체·개인에서 출발한 문화나무예술단은 올해 142개 단체 1750여명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 공연 횟수는 160회에 달할 전망이다.

문화나무예술단은 페스티벌 오!광주 브랜드 공연축제, 광주세계아리랑축전 등 각종 축제와 거리 공연에서 끼를 발산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해 개설한 문화나무 아트 콘텐즈몰 '12번가 문화나무(12tree.kr)'를 통해 이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운영위원인 박원자씨는 "우리 모임의 작은 활동이 지역에서 가곡을 조금이라도 알리는 데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며 "다양한 장르에서 이런 모임들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獨 로스톡미술관과 MOU

광주시립미술관이 최근 독일 북부 해양관광도시 로스톡시에서 '로스톡시립미술관' 및 '콘스트할레 로스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로스톡시는 베를린에서 200여km 떨어진 항구도시다. 로스톡시립미술관은 1859년에 설립됐으며, 중

세~현대에 이르는 역사·문화 관련 유물 및 작품 1만 36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1969년 세워진 콘스트할레 로스톡은 7000여 점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업무협약식에는 황영성 광주시립미술관장과 셀링

미카엘라(Selling Michaela) 로스톡시립미술관장, 요르그 우에 네우만(Jorg Uwe Neumann) 콘스트할레 로스톡관장이 참석했다. 협약에서 양 미술관은 앞으로 상호발전을 위해 소장작품 및 작가, 학예연구원 교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중국 북경금일미술관, 허난성미술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교류전을 개최한 바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0년간 미술품 감정 의뢰 1위는 천경자

한국미술품 감정평가원 조사

327점 감정...김환기 화백 262점 2위

위작 1위 이종섭...작품 58%가 가짜



김환기 작 '문도'

미술계에서 지난 10년은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주목 받는 시기였다. 천경자, 김환기, 손상기, 오지호 화백 등 지역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이 활발히 거래되면서 작품 가격도 급등했다. 그만큼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미술품 감정 의뢰도 많았다.

그렇다면 국내 화단에서 지난 10년간 미술품 감정 의뢰가 가장 많았던 작가는 누굴까?

지난 2003~2012년 10년간 미술품 감정 의뢰가 가장 많았던 작가는 고희 출신 천경자 화백과 신안 출신 김환기 화백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 최근 펴낸 '한국 근현대미술 감정 10년'(사문산적)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천경자 화백의 작품 327점을 감정했다. 이어 김환기 화백 262점(2위), 박수근 화백 247점(3위), 이종섭 화백 187점(4위), 이대원 화백 186점(5위) 등이다. 오지호(119점) 화백과 임직순(75) 화백도 각각 13위와 18위에 이름을 올렸다.

인기 작가의 작품은 위작도 많은 법. 천경자 화백은 전체 327점 중 99점(30.2%)이 위작으로 판명돼 두 번째로 위작이 많은 작가로 조사됐다. 위작이 가장 많은 작가는 이종섭 화백으로 187점 중 무려 108점(57.7%)에 달해, 진품(77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환기 화백은 262점 중 63점(24%), 박수근 화백은 247점 중 94점(38%), 오지호 화백은 119점 중 47점(39.4%), 임직순 화백은 75점 중 14점(18.6%)이 각각 위작으로 판명됐다. 미술품 감정 의뢰가 많은 작가 25명(전체 3182점)의 위작 평균은 약 28%다. 구상계열 작가들은 평균 34%, 비구상계열 작가들은 평균 17%가 위작으로 감정됐다.

평가원은 "비구상 작가의 위작 평균이 17%인 점을 감안하면 김환기 화백의 위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작품의 인기를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경자 작 '꽃과 여인'

한편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립현대미술관, 국회도서관, 한국은행 등의 작품을 감정해왔으며 지역에서는 목포시청, 화순군청, 광주는 행 등이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여체는 말한다

류영도전 10일까지 아트타운 갤러리

서양화가 류영도씨가 오는 10일까지 광주시 동구 아트타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오랜만에 광주에서 개인전을 연 류씨는 여체의 다양한 몸짓언어를 현대적인 감각을 이용해 관능적 매력이 한층 강조되는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여체의 아름다운 곡선과 배경에 나타난 비조형적 추상 이미지들을 접목시켜 구상과 비구상의 만남을 추구했다. 구상과 비구상이 만나면서 느껴지는 묘한 긴장감이 누드화의 매력을 더한다. 또 여백의 미를 강조한 대작들도 시선을 잡아끈다.

작가는 "구상으로서의 여체와 추상으로서의 불명확한 이미지는 이성과 감성의 대립적인 관계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류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와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졸



'여인의 향기'

업했으며, 광주문화예술상 특별상, 한국구상대제전 우수 작가상, 대동미술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32-714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